

9월의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쁨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영적 지도자로서의 길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이미 사탄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며 평안히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주옵소서.
3.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4.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5.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희망을 주옵소서.
6.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Imaobong Odutola, Kevin and Lexine Mack, Simon S. Prasad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내 영혼의 내진 설계

마음에 요동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 지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온통 흔들어 놓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내진설계를 해놓아야 합니다. 인생에 지진이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끄떡없고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무엇을 하든 집중해서 일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거의 다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험하니 약물로만 치료하지 말고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최근 운동을 해도 심장에 많이 무리가 와서, 용기를 내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지난주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전 다시 진찰을 해보니 확실히 제 심장동맥이 막혀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가슴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막힌 동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막히지 않고 아주 깨끗해서 한 2년 동안 끄떡없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진설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2년 인도네시아 성회



지난 2002년 7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 대성회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로 성회가 열린 베다니 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다. 당시 새롭게 성전을 헌당하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헌당 예배와 함께 개최된 성회였다. 성회를 준비한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조용기 목사에게 셀 목회에 대해 배우고, 조용기 목사의 저서들과 관련자료들을 탐독하며 인도네시아 땅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펼쳐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로부터 배운 목회 비결을 인도네시아 현지화 하는데 힘써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어 이슬람교에 잠식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

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알렉스 아브라함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 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막내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침 받은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알렉스 아브라함 목사에게 아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잃지 말기를 충고했고 하나님께 고침 받은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했다. 그 후 조용기 목사의 권면처럼 아들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기를 3개월 뒤 기적적으로 막내아들은 병이 나았고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아버지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베다니교회의 새로운 성전 헌당을 기념하고 말씀 중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의 인생여정에서 사단은 저주와 질병, 가난의 홍해를 통해 우

리 앞을 가로막지만,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어 주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는 칠색 같은 상황이 계속돼 우리 삶의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에 포함시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해법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의 발원지인 아라비아 반도와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무슬림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기독교 복음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현지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이 영적으로 따르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주님을 가까이하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풍량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업이 순식간에 파산하기도 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하루 아침에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순식간에 파도가 배를 덮쳐서 침몰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풍량이 불어 닥쳤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잠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셔서 잠을 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날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천국에서 세상으로 옮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중대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주님과 교회의 교통이 소홀해지는 때가 오면 그러다 결국 우리 마음의 관심이 세상에 있게 되고, 생활도 주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2. 기도로 주님을 깨우라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량을 만났을 때는 기도로써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량을 만났을 때, 자기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어부 출신으로 바다에서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으나 그토록 엄청난 큰 파도에는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회개하고 깨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어찌든지 기도로써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

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와서 주님께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붙잡고 흔들고 고함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매 즉시로 바다가 잠잠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셋째로, 풍량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주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건너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의 풍량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 불어 닥친 모든 풍량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2~25절)

특집: 조용기 목사님의 대륙별 해외성회 ⑨

오세아니아 (1)



▲ 1987년 1월 성회



▲ 1987년 5월 성회



▲ 2000년 5월 성회



▲ 2000년 9월 성회

오세아니아는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총칭하는 말로 세계 육지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흩어진 상당히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은 18세기 후반 처음 유럽에 알려진 후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인들이 많이 이주해왔다. 가장 큰 섬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한다.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가톨릭 신자가 많지만 기독교 복음화율도 낮지 않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오세아니아 대륙의 선교는 호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호주는 지난 1977년 4월 조용기 목사가 시드니에서 성회를 인도한 후 영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호주의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을 심어주며 성령운동이라는 물결을 일으켰는데, 성회 이후 호주 성도들은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 듣기도 하는 등 뜨거운 신앙을 키워갔다.

조용기 목사가 불을 지핀 호주 땅의 성령운동은 1979년 호주 시드니순복음교회 설립을 향한 태동이었다. 교회가 설립되던 초기에는 마땅한 예배처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드니에 6개의

지성전을 세웠고 나아가 호주 전역과 뉴질랜드, 피지에 29개의 지교회를 세웠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영혼들이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여정에 동참하며 선교의 지평을 새롭게 열게 된 것이다.

또한 조용기 목사의 오세아니아 선교 본부 라고도 할 수 있는 시드니순복음교회는 1980년대 호주 교민들의 이민자로서의 애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했고 체류기간이 지난 한인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기도 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다